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브루나이, 경제다변화 움직임

작은 면적과 적은 인구를 가진 브루나이는 과거에는 플랜테이션, 현대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높은 GDP를 기록하는 부유한 국가지만, 브루나이 정부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경제다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브루나이의 최근 경제동향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 북서쪽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로 인구는 약 42만 명이다. 브루나이는 1888년 영국 보호국이 되었으며 경제발전의 대부분은 플랜테이션에 기 초했다. 1929년 유전이 발견된 이후에는 석유가 경제발전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1984년 독립 이후에도 석유사업은 브루나이 정부와 로얄더치셸(Royal Dutch Shell)의 공동투자로 이루어지며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 브루나이 경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2015년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생산이 전체 GDP의 56%를 차지했으며 전체 수출의 93%를 차지했다. 이처럼 브루나이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민감한 모노컬처(Monoculture) 경제 체제를 이뤘다.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인당 GDP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외 두드러지는 특징은 적은 인구와 오일,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꼽힌다. 또한 개인소득세 및 소비세가 없으며 브루나이 국민들은 의료, 교육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받은 환경’은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2014년 브루나이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0%가 공공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분야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다.

경제다변화를 위한 브루나이 정부의 움직임

이에 브루나이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향후 천연자원 고갈을 염려해 경제다변화를 위한 성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장기간 국가비전 계획인 ‘Wawasan Brunei 2035’를 발표했으며 해당 계획은 크게 두 개의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위권 내로 국민생활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석유 및 천연자원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와 다변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제 다변화를 위한 방법은 단순히 석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과 수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미 여러 가지 관련사례들이 있으며 일례로 원료인 천연가스에서 메탄올을 추출하여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브루나이 정부는 천연자원 산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국내 주요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도입, 외국 회사 및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Onevillage-OneProduct’ 운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며 기업가정신 교육, 스타트업 지원 콘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산업 단지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자 하며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투자에서 얻은 이익을 제약 없이 회수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Will Economic Diversification of Brunei Succeed?, JETRO, 2017.10.16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7/acb9e2b3d4914574.html>